

담당부서	건설경제연구실	연구책임자	이홍일 연구위원 박철한 연구원	전화번호	3441-0611 3441-0641
------	---------	-------	---------------------	------	------------------------

제 목: 2011년 1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12월 CBSI 전월비 5.6p 상승한 71.6

- 12월 공공공사 발주 증가 영향 상승,
중소업체 지수 15.4p 상승해 CBSI 상승 주도 -

- 2011년 12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5.6p 상승한 71.6을 기록함.
 - 이로써 CBSI는 지난 11월 0.6p 상승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하였으며, 3개월만에 70선을 다시 회복함(9월 73.8, 10월 65.4, 11월 66.0).
 - 그만큼 건설업체들이 체감하는 건설경기가 12월 들어 소폭 개선되었다는 의미임.
 - 예년과 마찬가지로 예산 소진을 위한 연말 공공공사 발주가 늘어난 가운데, 특히 12월에 발주가 집중되어 12월 CBSI가 5.0p 이상 상승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지수 자체는 아직 기준선(100.0)에 훨씬 못 미친 70선 초반에 불과하여 체감 건설경기 수준은 여전히 저조함.
 - 2011년 한 해 동안 CBSI는 단 한번도 75를 넘지 못하고, 65~75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횡보세를 보였음. 그만큼 2011년 한 해 동안은 건설경기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왔음.
- 한편, 2012년 1월 CBSI 전망치는 12월 실적치 대비 7.6p 하락한 64.0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7.6p 하락한 것은 건설업체들이 1월에는 건설경기 침체수준이 지난 12월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통상 1월에는 공사 발주물량 감소에 따라 CBSI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2012년 1월에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CBSI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업체 지수가 전월비 매우 소폭 하락한 가운데, 중견, 중소기업 지수는 상승함.
 - 지난 10~11월 동안 84.6을 유지했던 대형업체 지수가 12월에는 전월비 1.3p 하락한 83.3을 기록함.
 - 중견업체 지수는 지난 11월까지 3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12월에는 전월비 4.0p 상승한 68.0을 기록하며 체감 건설경기 수준이 소폭 개선됨.
 - 지난 10월까지 4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하다 지난 11월에 전월비 6.4p 상승한 중소기업 지수는 12월에도 전월비 15.4p 상승, 61.8을 기록해 6개월만에 60선을 넘어섰으며, 12월 CBSI 상승을 주도함.
 - 중소기업 지수의 상승이 두드러진 것을 볼 때 12월에 소규모 공공공사 발주가 상대적으로 가장 양호했던 것으로 추정됨.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4.5, 97.2를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4.1, 75.1을 기록해 자재비 상황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86.3, 81.6을 기록해 자금조달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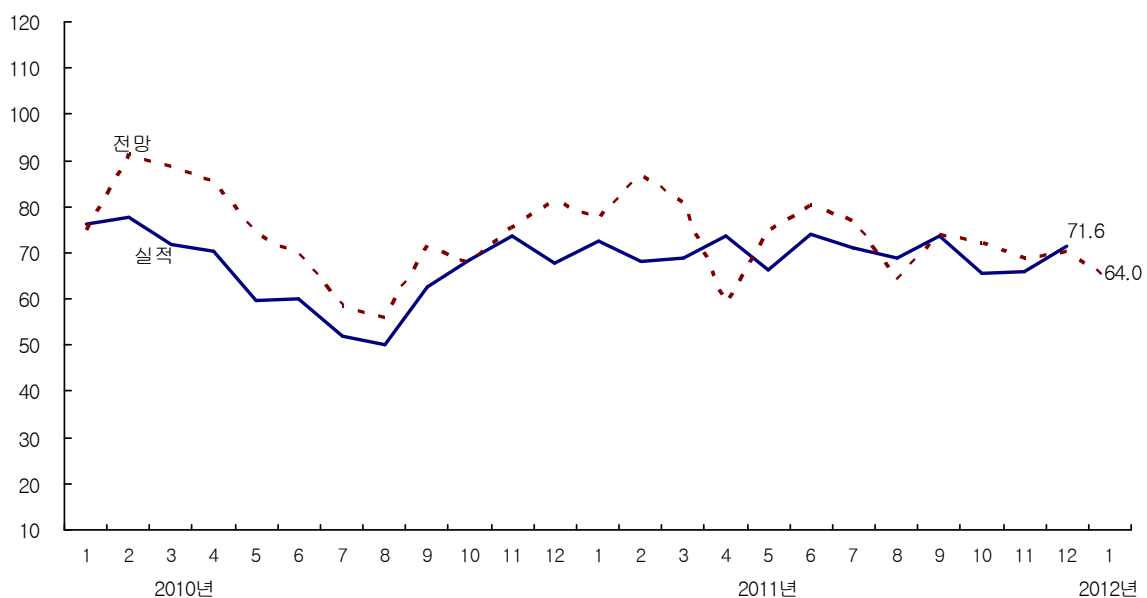
※ 본 보도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1년 1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12월 CBSI 전월비 5.6p 상승한 71.6

- 2011년 12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5.6p 상승한 71.6을 기록함.
- 이로써 CBSI는 지난 11월 0.6p 상승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하였으며, 3개월만에 70선을 다시 회복함(9월 73.8, 10월 65.4, 11월 66.0).
- 그만큼 건설업체들이 체감하는 건설경기가 12월 들어 소폭 개선되었다는 의미임.
- 예년과 마찬가지로 예산 소진을 위한 연말 공공공사 발주가 늘어난 가운데, 특히 12월에 발주가 집중되어 12월 CBSI가 5.0p 이상 상승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지수 자체는 아직 기준선(100.0)에 훨씬 못 미친 70선 초반에 불과하여 체감 건설경기 수준은 여전히 저조함.

< 경기종합 BSI 추이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011년 한 해 동안 CBSI는 단 한번도 75를 넘지 못하고, 65~75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횡보세를 보였음. 그만큼 2011년 한 해 동안은 건설경기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왔음.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업체 지수가 전월비 매우 소폭 하락한 가운데, 중견, 중소기업 지수는 상승함.
 - － 지난 10~11월 동안 84.6을 유지했던 대형업체 지수가 12월에는 전월비 1.3p 하락한 83.3을 기록함.
 - － 중견업체 지수는 지난 11월까지 3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12월에는 전월비 4.0p 상승한 68.0을 기록하며 체감 건설경기 수준이 소폭 개선됨.
 - － 지난 10월까지 4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하다 지난 11월에 전월비 6.4p 상승한 중소기업 지수는 12월에도 전월비 15.4p 상승, 61.8을 기록해 6개월만에 60선을 넘어섰으며, 12월 CBSI 상승을 주도함.
 - － 중소기업 지수의 상승이 두드러진 것을 볼 때 12월에 소규모 공공공사 발주가 상대적으로 가장 양호했던 것으로 추정됨.

< 규모별 · 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11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2년 1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68.1	69.0	73.8	66.3	74.1	71.1	68.9	73.8	65.4	66.0	71.6	70.3	64.0
규모 별	대형	78.6	92.3	107.7	76.9	83.3	84.6	76.9	100.0	84.6	83.3	76.9	75.0
	중견	73.1	76.9	58.3	66.7	73.9	72.0	75.0	73.1	68.0	68.0	75.0	66.7
	중소	50.0	32.7	51.8	53.6	63.6	54.4	52.6	43.9	40.0	61.8	57.1	48.1
지역 별	서울	79.1	82.0	87.9	68.6	77.4	80.2	78.4	91.6	74.1	72.5	71.9	72.1
	지방	51.2	49.7	53.3	62.9	71.2	57.2	54.6	47.5	52.7	70.1	67.7	52.0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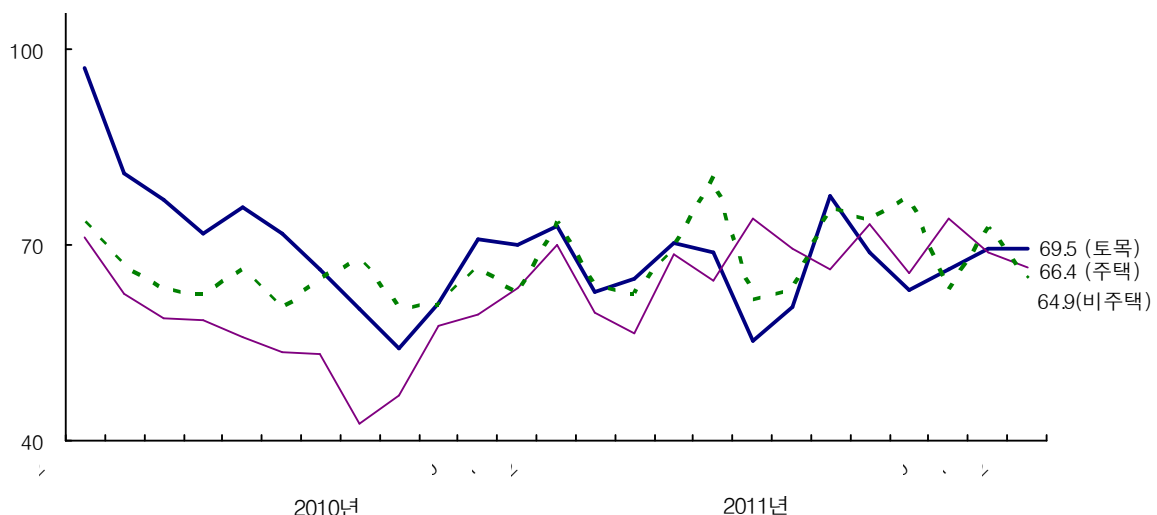
- 한편, 2012년 1월 CBSI 전망치는 12월 실적치 대비 7.6p 하락한 64.0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7.6p 하락한 것은 건설업체들이 1월에는 건설경기 침체수준이 지난 12월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통상 1월에는 공사 발주물량 감소에 따라 CBSI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2012년 1월에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CBSI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지역별로 12월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서울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1.4p 하락한 반면, 지방업체는 지수가 16.3p 증가함.
- 서울업체 지수는 전월보다 1.4p 감소한 72.5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해 부진한 모습을 보임.
 - 반면, 지방업체 지수는 전월보다 16.3p 증가한 70.1로 지난 2011년 6월 71.2 이후 7개월 만에 70선을 회복함.
 - 지방의 토목 물량 지수가 69.5로 전월 대비 14.7p 증가해 지방업체 지수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됨.

12월 공사 물량지수 전월대비 2.9p 감소한 71.4 기록

- 12월 공사 물량지수는 전월대비 2.9p 감소한 71.4로 건설사들이 체감하는 물량 상황이 11월보다 다소 악화 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2011년 10월 공사 물량지수는 61.4로 매우 부진했으나 11월 비주택물량 지수의 회복으로 전월 대비 12.9p 증가한 74.3 기록하였음. 12월에는 11월보다 2.9p 소폭 감소한 71.4를 기록함.
 - 통상 12월에는 연말 밀어내기 물량의 영향으로 지수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올 12월에는 지수가 감소해 업체들이 체감하는 물량 상황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11년 12월 물량지수 71.4는 10년 동안 작성된 12월 물량 지수 중 지난 2008년 12월 62.7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임.
 - 건설사들의 체감하는 연말 물량 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가 침체한 2008년 이후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 공종별로 토목물량 지수가 전월 대비 0.1p 소폭 증가하였으나 주택과 비주택 물량이 각각 전월 대비 2.3p, 7.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 토목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0.1p 증가한 69.5를 기록, 지난 2011년 11월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함.
 - － 주택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2.3p 감소한 66.4를 기록함. 지수가 지난 10월 74.0을 기록한 이후 두달 연속 하락함.
 - － 비주택 물량지수는 지난 11월 70선 이상인 72.6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다른 공종에 비해 양호한 수치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12월에는 공종별로는 가장 부진한 64.9에 그침.
 - － 2012년 세계 및 국내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감소해 연말에 상업용 건축물 공사 물량이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판단됨.
- 업체 규모별로는 대형과 중견업체의 물량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중견업체의 경우 전월보다 10p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대형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 보다 1.3p 감소한 83.3을 기록함.
 - － 중견업체 물량지수는 지난 11월 토목과 비주택 물량이 증가해 전월보다 15.3p 상승한 83.3을 기록하였으나, 12월에 다시 12.5p 감소한 70.8로 업체규모별로는 전월 대비 가장 크게 하락함.
 - － 한편, 중소기업의 물량지수는 지방업체들의 토목 물량지수 상승에 힘입어 전월보다 6.4p 증가한 58.2를 기록, 2011년 월간 물량 실적으로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71.4	83.3	70.8	58.2	72.2	70.1
	전망	64.3	75.0	70.8	44.2	71.2	54.0
토목	실적	69.5	75.0	73.9	58.2	69.7	69.5
	전망	58.9	58.3	73.9	42.3	61.5	54.8
주택	실적	66.4	75.0	75.0	46.7	69.0	63.3
	전망	61.7	75.0	58.3	50.0	65.8	55.4
비주택	실적	64.9	75.0	66.7	51.0	70.8	55.5
	전망	58.9	75.0	58.3	40.8	65.8	48.2

주 : 실적은 2011년 12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12년 1월 예측지수임.

- 지역별 물량지수는 서울업체가 전월 대비 9.0p 감소한데 반해 지방업체는 6.5p 상승하였음.
 - 서울업체의 물량지수는 지난 11월에 12.9p 증가해 81.2를 기록해 80선을 회복하였으나 12월에 다시 9.0p 감소해 한달 만에 70선인 72.2로 하락함.
 - 지방업체 물량지수는 11월에 전월보다 12.4p 상승한 후 12월에도 다시 6.5p 상승함.
 - 결국, 지난 2010년 4월 71.1을 기록한 후 20개월 만에 최대치인 70.1을 기록함.
 - 전월 대비 다른 물량지수들이 모두 감소한 반면, 토목 물량지수가 14.7p 증가한 69.5를 기록한데 따른 결과로 분석됨.

- 2012년 1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2011년 12월 실적치보다 7.1p 감소한 64.3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계절적으로 연초에 물량상황이 다소 악화되지만, 지수가 64.3으로 낮은 수준인 것을 감안 1월 물량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토목 물량지수는 12월 실적치보다 10.6p 감소한 58.9로 매우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
 - 주택 물량지수는 12월보다 4.7p 감소한 61.7로 물량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비주택 물량지수는 12월보다 6.0p 감소한 58.9로 지난 2009년 4월 55.6을 기록한 이후 가장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 상대적으로 양호,
자재비 상황 어려움**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4.5, 97.2를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4.1, 75.1을 기록해 자재비 상황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한편,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는 86.3, 81.6을 기록해 자금조달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금 · 인력 · 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수금	실적	86.3	100.0	84.0	72.7	87.7	84.0
		전망	81.9	100.0	80.0	62.7	84.5	79.8
	자금조달	실적	81.6	100.0	72.0	70.9	81.8	81.2
		전망	81.1	100.0	72.0	69.2	80.9	81.3
인력	수급	실적	94.5	100.0	92.0	90.9	95.5	93.0
		전망	92.4	100.0	92.0	84.0	94.3	91.6
	인건비	실적	84.1	91.7	88.0	70.9	89.7	75.7
		전망	81.3	91.7	92.0	56.9	87.9	71.2
자재	수급	실적	97.2	100.0	100.0	90.7	98.6	95.0
		전망	94.6	100.0	96.0	86.5	96.4	91.6
	비용	실적	75.1	91.7	76.0	54.7	81.9	66.7
		전망	73.3	83.3	80.0	53.8	75.3	70.4

주 : 실적은 2011년 12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12년 1월 예측지수임.